

## I. 주간 경제 동향

### 1. 경제 개관

- (외환시장) 각종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정의 호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에 머물러 있음
- (자금시장) 정부가 지표금리의 하락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중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권의 자금 회수로 자금경색 현상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식시장) 국내은행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부실기업 조기 정리 방침으로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주가의 상승 반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평가됨

### □ 외환 · 금융 시장 동향

- (외환시장) 각종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환 수급 요인에 의해 환율은 1,400원 대 전후를 유지
  - 인도네시아의 政情 불안 고조,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 등으로 싱가포르 역외 선물환율은 6개월물 기준으로 1,600원까지 육박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주가하락, 무디스社의 국내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환율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외환수급 사정이 아직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은 1,400원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음
- (자금시장) 금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여건의 불안정화로 자금시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1,300원대의 환율 유지, 정부와 IMF의 금리 인하 합의, 월내 콜금리의 15%대 인하라는 정부 방침 등으로 실세금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은행권에 자금이 고이면서 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일 현재 17.52%를 기록하고 있고,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7.7%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가속화 방침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회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기업부도율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주식 시장 동향과 전망

- (동향)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였음
  - 무디스社의 국내은행 신용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정부의 부실기업 조기 판정 방침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
  - 4월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상실되었고, 고객예탁금도 연초 4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격감하였음
- (외국인 동향) 작년말 외환위기의 '외국인 매도→주가하락→외자유출→외환위기'의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들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인들이 매입 기준으로 삼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가 환율하락으로 지난해말보다 아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MSCI 지수는 97년 12월말 30에서 5월 11일 현재 46 수준으로 높아져있음
- (침체의 원인 및 전망) 최근의 주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기초체질(fundamental)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 평가에 기인함
  - 즉, 주가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것이 크게 개선될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환차손이 커 영업외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이 의해서 견인되었던 주가가 환율 하락으로 다시 지난해말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1,400원 대 재진입
  - 5월초 노동계 시위 여파로 금융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외국인들이 주식·채권시장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300원 대에서 안정을 보이던 환율도 1,400원 대로 재진입함. 5월 15일 1,410.20원 기록
- 주가 : 기업의 부도 증가 가능성으로 폭락세
  - 대내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로 부도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사태 재발과 일본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였음. 5월 14일 종합주가지수는 362.94포인트 기록

**- 금리 : 불안한 조정 양상**

IMF와의 금리 인하 합의와 당국의 금리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태 악화와 노동계 불안에 이어 5월말 부실기업 정리를 앞두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회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음. 그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멈추고 17% 후반대에서 불안한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5월 14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7.80% 기록

**- 엔/달러 환율 : 상승세 지속**

인도네시아 정세가 계속 불안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엔화 환율이 달러당 135엔 선에 근접할 경우 일본은행의 엔화 매입이 예상되고 있어 환율의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5월 14일 현재 133.77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1월	2월	3월	4월	5월14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 물 지 표	무역 수지 (동관기준,억불)	-84.5	14.5	47.2	84.0	123.4	-	256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6.2	30.6	69.9	106.9	-	-	280	흑자 지속	상품서비스 수 지 흑자	
	물 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6.6	8.3	9.5	9.0	8.8	-	9.2	급등 추세	환율 안정 국제원자재가 하락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10.9	15.2	17.7	17.5	17.5	-	16.2	완화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3.1	4.1	4.7	5.3	-	-	6.0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 융 지 표	환 율	₩/\$	1,415.2	1,688.8	1,640.1	1,387.0	1,338.2	1,410.2 (15일)	1,400	상승	노사관계 악화, 동남아위기 재연
		¥/\$	130.57	126.95	126.08	131.90	132.38	133.77	134	상승	인도네시아 정 국 불안
	금 리 (%)	RP 금리	35.0	29.0	24.2	24.0	19.14	18.1	-	보합	구조조정을 앞 두고 금융시장 경색 심화
		회사채수익률	28.98	18.50	20.50	18.28	17.70	17.80	17.5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2.20	19.00	18.7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25.98	24.58	-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481.04	421.2	362.94	550	하락	외국인 매도세 증가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67.2 (185.4)	297.5 (241.5)	355.4 (307.6)	-	510 (400)	증가	경상수지 흑자, 외평채 발행		

주: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2) 외환보유고의 (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